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김 윤 경 이 옥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또래지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특성, 학업수행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81명과 중학교 2학년 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회측정검사에 의해 5개의 또래지위집단(인기, 양면성, 보통, 무시, 거부)으로 분류하여 지위집단 간에 외로움,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자기지각, 행동특성, 학업수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거부집단이 외로움과 사회적 회피 수준은 가장 높았고 학업성적은 가장 낮았으며 인기집단은 그 반대였다. 거부집단과 무시집단은 인기집단과 양면성집단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거부집단은 부정적 행동특성을 가장 많이 보였고 긍정적 행동특성은 가장 적게 보였으며, 인기집단은 긍정적 행동특성을 가장 많이 보였고 부정적 행동특성은 적게 보였다. 무시집단은 긍정적 행동특성과 부정적 행동특성을 모두 적게 보였다. 5개의 또래지위 중 부적응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거부집단을 행동특성에 따라 공격-거부집단과 위축-거부집단으로 하위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학업성적과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았지만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은 위축-거부집단만 낮았다. 이와 같이 공격-거부집단과 위축-거부집단은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에게 각기 다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래집단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생태적 맥락(ecological context) 중의 하나이다.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환경이 가족에서 또래에게로 확대되고, 특히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면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면서 또래관계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 또래관계는 초기의 부

모-아동, 형제 관계와 이후의 사회성, 성격 발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다. 또래관계가 원만한 아동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 하는 반면에,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현재와 이후에 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낼 위험성이 높다(Parker & Asher, 1987).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아동과 청소년

* oklee@cc.sungshin.ac.kr

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를 감소 시킴으로써 이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유형을 습득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이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Coie, 1990; Rubin, LeMare, & Lollis, 1990).

아동의 현재와 이후의 적응을 예언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또래지위(peer status)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Coie, Dodge, 및 Coppotelli(1982)는 사회측정적 지명(sociometric nomination) 절차를 사용하여 인기 있는(popular) 아동, 양면성(controversial) 아동, 보통(average) 아동, 무시되는(neglected) 아동, 거부되는(rejected) 아동을 분류하였다. 인기 있는 아동은 또래들에 의해 사려 깊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후에도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또래에게 거부되는 아동은 공격적이고 자기주장적이며 과잉 활동적이고 부주의하며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사회적 불안 그리고 많은 학업문제를 보고하며 시간이 지나도 그 지위가 안정적이었다. 또래지위를 5년에 걸쳐 매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처음 측정시 5학년이었던 아동들은 상당한 안정성을 보였다(Coie & Dodge, 1983).

또래집단에서 고통받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아동을 인식하는데 외로움,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여러 연구에서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이 수용되는 아동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Asher와 Wheeler(1985)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들을 연구하여, 거부아동은 인기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한 반면 무시아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부아동이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사회적 불만족을 보인다는 결과는 학령전 아동(Cassidy & Asher, 1992), 초등학교 3, 5학년 아동(Crick & Ladd, 1993), 중학생(Parkhurst & Asher, 199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킨다. 또래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동의 자기개념 발달에 관여하게 된다. Harter(1982)는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관계와 자기지각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인기 없는 아동은 인기 있는 아동에 비해 자신의 능력을 낮게 보고하였다. Boivin과 Begin(1989)의 연구에서 인기 있는 아동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무시되는 아동과 보통 아동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거부되는 아동 중 일부는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하고 자신의 실제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Patterson, Kupersmidt, 및 Griesler(1990)의 연구에서도 인기 있는 아동은 다른 지위의 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자기지각을 보고한 반면에 무시되는 아동은 다른 지위의 아동에 비해 가장 낮게 지각된 사회적 능력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거부되는 아동 특히 공격-거부 아동은 외적 준거에 비해 자신의 행동능력을 다른 지위의 아동보다 과대평가하였다.

Newcomb, Bukowski, 및 Pattee(1993)는 또래지위에 관한 41개 연구를 메타 분석(meta-analysis)하여, 공격성, 사회성, 위축(withdrawl), 학업/지적 능력에서 4개의 또래지위 유형(인기, 거부, 무시, 양면성)과 평균 유형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보면, 직접관찰, 또래평가, 성인평가, 자기보고의 4가지 정보원천에서 상당한 일관성이 발견되었다. 인기아동은 높은 수준의 사회성과 인지능력 및 낮은 수준의 공격성과 위축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거부아동은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위축 및 낮은 수준의 사회성과 인지능력을 나타냈다. 괴롭히는 아동과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 모두 주로 거부 집단에 속했으며, 일반적으로 거부아동의 사회발달은 위협에 처해 있었다. 양면성아동은 거부아동과 인기아동의 특성의 조합을 나타냈다. 이들은 높은 공격성을 높은 인지적, 사회적 능력으로 보완하였다. 무시아동은 특별히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낮은 수준의 집단관여를 보였다. 이들은 낮은 공격성,

낮은 사회성을 보였으나, 사회적 불안, 위축, 우울을 경험하지 않았다.

또래거부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Ladd(1990)는 유치원 시절부터 또래거부가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치원에 입학한지 2개월 후부터 또래에게 거부당한 아동들이 학년이 끝날 무렵 적응문제의 위험성을 보였다. 또래거부의 단기적인 부정적 결과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낮은 학업수행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장기적으로 비행, 퇴학, 정신병리와 관련된다(Coie & Gillissen, 1993). Kupersmidt와 Patterson(1991)은 2, 3, 4학년 아동의 또래지위를 측정하고 나서 2년 후 4, 5, 6학년이 되었을 때 한가지 이상의 특수한 문제영역에서 임상적 범위의 점수를 받은 아동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 거부집단이 예상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Parkhurst와 Asher(1992)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지위에 따라 행동특성을 분석했을 때 인기집단이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에 가장 많이 지명되었다. 거부집단은 보통집단보다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에 적게 지명되었고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에 더 많이 지명되었다. 양면성집단은 거부집단과 같이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에 많이 지명되었으나 긍정적 행동특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다. 무시집단은 이런 행동특성에서 보통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거부집단을 행동특성에 따라 2가지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보통집단과 비교했을 때, 두 집단 모두 긍정적 행동특성에서 보통집단보다 더 적은 지명을 받았으나, 공격-거부집단은 보통집단보다 부정적 행동특성에서 더 많은 지명을 받았고 비주장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위축-거부집단은 보통집단보다 비주장성과 부정적 행동특성의 일부에서 더 많은 지명을 받았다. 그리고 위축-거부집단은 보통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보고했으나 공격-거부집단은 보통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갖게될 위험성이 높은 거

부집단의 아동을 별개의 적응문제와 행동문제를 갖는 2개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초기의 사회적 어려움과 관련된 장기적인 결과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Hymel et al., 1993). 공격-거부집단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위축-거부집단은 심한 사회적 비주장성(unassertiveness)과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이며 다른 아동으로부터 쉽게 괴롭힘을 당한다. 공격-거부 아동은 자신의 사회적 문제를 덜 인식하고 있고(Boivin & Hymel, 1997),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Hymel, Bowker, & Woody, 1993), 청소년 비행 같은 외현화 문제를 드러내는(Parker & Asher, 1987) 반면에, 위축-거부 아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고(Boivin & Hymel, 1997; Hymel et al., 1993),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외로움,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를 드러낸다(Boivin, Poulin, & Vitaro, 1994; Hymel, Rubin, Rowden, & LeMare, 1990). 따라서 위축-거부집단은 공격-거부집단보다 그들의 사회적 세계에 대해 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사회적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Boivin & Hymel, 1997).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측정적 지명절차를 사용하여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5개의 또래지위로 분류하여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특성, 학업수행을 비교하였고, 둘째, 거부집단을 행동특성에 따라 하위분류하여 하위집단 간의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특성, 학업수행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S1초등학교, S2초등학교, S3초등학교 4학년에서 각각 3학년 씩 모두 9학급의 초등학교생 381명과, O중학교, S여자

표 1. 학년과 성별에 따른 또래지위 집단 분포

		또래지위 집단						
		인기 n (%)	양면성 n (%)	보통 n (%)	무시 n (%)	거부 n (%)	기타 n (%)	합계 n
초등학교	남	28 (14.1)	7 (3.5)	34 (17.2)	23 (11.6)	23 (11.6)	83 (41.9)	198
	여	20 (10.9)	3 (1.6)	40 (21.9)	18 (9.8)	21 (11.5)	81 (44.3)	183
중 학교	남	19 (9.5)	11 (5.5)	45 (22.6)	18 (9.0)	23 (11.6)	83 (41.9)	199
	여	28 (15.3)	7 (3.8)	40 (21.9)	26 (14.2)	13 (7.1)	69 (37.7)	183
합 계		95 (12.5)	28 (3.7)	159(20.8)	85 (11.1)	80 (10.5)	316(41.4)	763

중학교, 남자중학교 2학년에서 각각 3학년 씩 모두 9학급의 중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급의 재적 인원은 초등학교는 38~48명이었고 중학교는 40~44명이었으며, 초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0.5세,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14.4세였다. 전체 763명의 연구대상자 중 447명(58.6%)이 사회측정 검사에 의해 5가지 또래지위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316명(41.4%)은 기타로 분류되었고, 학년과 성별에 따른 또래지위 집단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아동기 중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의 또래지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Coie & Dodge, 1983)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이은혜, 1985). 그리고 청소년기 중에서 중학교 2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과 연령차가 적절하면서도 초등학생과 비교가 가능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본 연구는 학년말인 2월 중순에 실시하였으므로 또래지위를 평정할 수 있을 만큼 반 학생들끼리 충분히 친숙한 상태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질문지로서 또래지위를 측정하는 문항, 학교에서의 외로움을 측정하는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문항,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 문항, 자기지각 문항 그리고 행동특성을 평가하는 문항을 포함해서 총 8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사회측정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지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Coie와 Dodge (1983)가 사용한 절차에 따라 사회측정 검사(sociometric measure)를 실시하였다. 즉, 각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학급 안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학급에서 각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들로부터 받은 긍정적 지명수와 부정적 지명수를 각 학급단위로 표준점수화(Z점수) 하였다. 표준화된 긍정적 지명점수(Like Most : LM)에서 표준화된 부정적 지명점수(Like Least : LL)를 뺀 점수는 사회적 선호점수(Social Preference : SP)가 되고, 표준화된 긍정적 지명점수와 표준화된 부정적 지명점수를 더한 점수는 사회적 영향점수(Social Impact : SI)가 된다. 그리고 사회적 선호점수와 사회적 영향점수를 각 학급단위로 표준점수화(Z점수)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대상을 인기집단, 양면성집단, 보통집단, 무시집단, 거부집단 등 5가지 또래지위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분류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또래지위 집단 구분조건

또래지위 집단	구 분 조 건		
인기집단	SP > 1,	LM > 0,	LL < 0
양면성집단	SI > 1,	LM > 0,	LL > 0
보통집단	-0.5 < SP < 0.5,	-0.5 < SI < 0.5	
무시집단	SI < -1,	LM < 0,	LL < 0
거부집단	SP < -1,	LM < 0,	LL > 0

SP 표준화된 사회적 선호점수
 SI 표준화된 사회적 영향점수
 LM 표준화된 긍정적 지명점수
 LL 표준화된 부정적 지명점수

2.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 척도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위에 따른 외로움을 알아보기 위해서 Asher와 Wheeler(1985)의 외로움 및 사회적 불만족(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척도를 문은영(1993)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sher, Hymel, 및 Renshaw(1984)의 척도를 개정한 것으로서, 또래들에게 덜 수용되는 아동이 실제로 더 외롭고 불만족스러워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또래지위를 주관적으로 측정한다.

총 24문항으로 8개 문항은 취미나 흥미에 관한 것이며 16개 문항은 학교에서의 또래관계에 따른 외로움 및 불만족에 관한 것이다. 이 16개 문항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의 외로움에 관한 것, 현재의 또래관계에 대한 자신의 평가, 중요한 또래관계에서 필요한 요건이 어느 정도나 충족되고 있는가, 자신의 사회적 유능감에 관한 지각을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하며 취미에 관한 문항은 점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 16점(낮은 외로움)에서 최고 80점(높은 외로움)까지의 점수를 얻게 된다.

Asher와 Wheeler(1985), Crick과 Ladd(1993) 그리고

Parkhurst와 Asher(1992)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Cronbach's alpha = .90을 얻었다.

3. 사회적 불안 및 사회적 회피 척도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를 알아보기 위해 Franke와 Hymel(1984)의 사회적 불안 및 사회적 회피(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척도를 최우영(1994)이 번안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사회적 불안을 측정하는 6개 문항과 사회적 회피를 측정하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항상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하여 최저 6점(낮은 불안/회피)에서 최고 30점(높은 불안/회피)까지의 점수를 얻게 된다.

Franke와 Hymel(1984)이 보고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사회적 불안이 .83, 사회적 회피가 .75이었고 Crick과 Ladd(1993)가 보고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사회적 불안이 .70, 사회적 회피는 .79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는 사회적 불안이 Cronbach's alpha = .76, 사회적 회피가 Cronbach's alpha = .77이었다.

4. 자기지각 척도

Harter(1985)의 아동용 자기지각 프로파일(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김치영(1987)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arter(1982)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1985년에 개정되었으며 아동의 자기유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총 36문항이며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 운동능력, 신체매력,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의 6개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설명해주는가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어떤 문항

은 왼쪽부터 가장 적합한 진술이 되어 있으며 또 다른 문항은 오른쪽부터 가장 적합한 진술이 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적합한 진술이 되어 있는 문항은 4,3,2,1 순으로 평정하고 오른쪽부터 적합한 진술이 되어 있는 문항은 1,2,3,4 순으로 평정하여 각 하위척도별로 최저 6점(낮은 자기지각)에서 최고 24점(높은 자기지각)까지의 점수를 얻게 된다.

Harter(1985)가 보고한 각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71에서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능력 .77, 사회적 수용 .73, 운동능력 .75, 신체매력 .82, 품행 .69, 전반적 자기기치 .84이었다.

5. 또래 행동평가

본 연구에서는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또래 행동평가(Behavioral Assessment) 도구를 이용하였다. Parkhurst와 Asher(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이 도구는 8 가지 행동기술문으로 되어 있으며 각 기술문에 적합한 같은 반 친구를 인원에 제한 없이 지명하게 하는 방법이다. “모여서 협동을 잘한다(cooperates in a group)”, “믿을 수 있다(someone you can trust)”, “친절하다(kind)”와 같은 문항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싸움을 먼저 건다(starts fights)”, “악을릴 수 없다(can't take teasing)”,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disrupts things in a group)”와 같은 문항은 부정적인 상호작용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수줍어한다(shy)”, “쉽게 괴롭힐 수 있다(easy to push around)”와 같은 문항은 비주장성(unassertiveness)을 측정하는 것이다. 각 학생들의 8가지 행동특성 점수는 각 행동특성에 그 학생이 지명된 수를 설문지에 옹한 각 학급의 전체 학생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한 백분율 점수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8 가지 행동특성에 대해 제한 없는 지명과 백분율을 사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제한된 지명이 사용되면 한 학생이 주어지진 행동특성에 지명되는지의 여부는 다른 학생

이 그 행동특성에 지명되는지의 여부에 좌우되지만, 제한 없는 지명을 사용하면 각 학생은 여러번 효과적으로 평가될 수 있게 된다. 둘째, 제한된 지명이 사용되면 모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같은 수의 지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갖는 학생이 어떤 학급에서는 혼할 수도 있고 또다른 학급에서는 드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학급별로 표준점수를 사용하는 것 또한 이런 차이를 간과하는 것이므로 백분율을 사용하였다(Parkhurst & Asher, 1992).

6. 학업성적

학업성적이 또래지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임 교사에 의해 학생들의 성적이 성적표에 근거해서 상(3으로 평정), 중(2로 평정), 하(1로 평정)로 평가된 자료를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1998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학교에서 학급별로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실시되었으며 담임 교사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각 학생들의 성적을 성적표에 근거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도록 부탁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50분 정도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을 5개의 또래지위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측정도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또래지위에 따라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성적, 자기지각의 6개 하위척도, 행동특성 각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을 설명하

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또래지위 집단 중 거부집단의 하위 분류에 따라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자기지각의 6개 하위척도, 성적, 행동특성 각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성적

또래지위, 학년, 성별에 따른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그리고 성적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로움($F_{4,427}=26.524, p<.001$), 사회적 회피($F_{4,425}=6.829, p<.001$), 성적($F_{4,427}=16.868, p<.001$)에서 또래지위만 주효과가 있었으며 어떤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표 3은 또래지위에 따른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그리고 성적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05

수준에서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로움($F_{4,442}=25.600, p<.001$)에서는 거부집단이 가장 많은 외로움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무시 집단이었고 인기집단이 가장 적은 외로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불안에서는 지위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회피($F_{4,440}=6.428, p<.001$)에서 거부집단과 무시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지만 거부집단은 인기집단과 보통집단 보다 더 많은 사회적 회피를 보였고 무시집단은 인기집단 보다 더 많은 사회적 회피를 나타냈다. 그리고 성적($F_{4,442}=18.197, p<.001$)에서는 거부집단이 다른 지위 집단들 보다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으며 무시집단은 인기집단 보다 낮은 성적을 보였다.

2. 자기지각

또래지위, 학년, 성별에 따라 자기지각과, 자기지각의 6개 하위척도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지각에서 또래지위($F_{4,416}=9.127, p<.001$), 학년($F_{1,416}=12.644, p<.001$), 성별($F_{1,416}=23.346, p<.001$)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 보면 신체매

표 3. 또래지위에 따른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 변인	또래지위 집단					F
	인기 (n=95)	양면성 (n=28)	보통 (n=159)	무시 (n=85)	거부 (n=80)	
외로움	26.59 ^a (7.68)	27.00 ^{c,d} (8.35)	30.55 ^c (8.63)	34.79 ^b (10.73)	40.03 ^a (12.67)	25.600 ^{***}
불안	14.86 (5.14)	14.93 (5.49)	16.33 (4.83)	16.90 (5.41)	15.69 (5.13)	2.363
회피	11.48 ^c (4.11)	12.93 ^{a,b,c} (4.37)	12.46 ^{b,c} (4.42)	13.96 ^{a,b} (4.25)	14.47 ^a (5.13)	6.428 ^{***}
성적*	2.44 ^a (.70)	2.04 ^{a,b} (.79)	2.16 ^{a,b} (.78)	1.99 ^b (.81)	1.50 ^c (.68)	18.197 ^{***}

*** p < .001

* 성적 : 상 (3) 중 (2) 하 (1)

같은 영문자는 .05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

력($F_{4,416}=3.343, p<.01$; $F_{1,416}=6.876, p<.01$; $F_{1,416}=19.099, p<.001$), 전반적 자기가치($F_{4,416}=3.597, p<.01$; $F_{1,416}=18.256, p<.001$; $F_{1,416}=13.272, p<.001$)에서도 또래지위, 학년,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학업능력에서는 또래지위($F_{4,416}=4.860, p<.001$)와 학년($F_{1,416}=9.802, p<.01$)의 주효과가 나타났다으며 사회적 수용($F_{4,416}=20.261, p<.001$; $F_{1,416}=7.253, p<.01$)과 운동능력($F_{4,416}=5.743, p<.001$; $F_{1,416}=29.542, p<.001$)에서는 또래지위와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상호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라 자기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t 검증한 결과, 6개 하위척도들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자기지각에서 초등학생($n=381$, 평균=15.21, 표준편차=2.85)이 중학생($n=382$, 평균=14.17, 표준편차=2.38)보다 자신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t_{748}=5.464, p<.001$). 하위척도별로 보면 학업능력($t_{748}=4.632, p<.001$), 운동능력($t_{748}=2.957, p<.01$), 신체매력($t_{748}=5.773, p<.001$), 품행($t_{748}=2.781, p<.01$), 전반적 자기가치($t_{748}=6.541, p<.001$)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신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수용에서만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 자기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연구대상자의 자료를 t 검증한 결과, 6개 하위척도들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자기지각에서 남학생($n=397$, 평균=15.31, 표준편차=2.55)이 여학생($n=366$, 평균=14.03, 표준편차=2.66)보다 자신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t_{748}=6.754, p<.001$). 하위척도별로 보면 학업능력($t_{748}=3.040, p<.01$), 사회적 수용($t_{748}=3.957, p<.001$), 운동능력($t_{748}=7.441, p<.001$), 신체매력($t_{748}=6.205, p<.001$), 전반적 자기가치($t_{748}=5.625, p<.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을 더 높게 지각하

표 4. 또래지위에 따른 자기지각과 하위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또래지위 집단					F
	인기	양면성	보통	무시	거부	
자기지각*	15.60 ^a (2.74)	15.98 ^a (2.72)	14.77 ^{a,b} (2.36)	13.92 ^b (2.44)	13.99 ^b (3.05)	7.717 ^{***}
학업능력	14.71 ^a (3.41)	14.32 ^{a,b} (3.45)	14.41 ^{a,b} (3.15)	13.14 ^b (2.85)	13.19 ^{a,b} (3.56)	4.432 ^{**}
사회적 수용	16.67 ^a (3.23)	16.54 ^a (3.47)	15.36 ^a (3.37)	13.82 ^b (3.16)	12.80 ^b (3.81)	17.898 ^{***}
운동능력	16.42 ^{a,b} (3.63)	17.86 ^a (3.32)	15.36 ^{b,c} (3.76)	14.43 ^c (3.47)	16.03 ^{a,b,c} (4.16)	6.082 ^{***}
신체매력	14.53 (4.42)	14.96 (4.99)	13.52 (3.92)	12.92 (3.94)	12.84 (4.21)	3.108 [*]
품행	15.23 (3.03)	15.39 (2.71)	14.94 (2.74)	14.27 (2.76)	14.57 (3.69)	1.592
전반적 자기가치	16.06 (4.09)	16.82 (4.00)	15.00 (3.90)	14.95 (3.95)	14.51 (4.58)	2.845 [*]

* p < .05 ** p < .01 *** p < .001

* 자기지각 점수는 6개 하위척도들의 평균을 사용
같은 영문자는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

고 있었으며 품행에서만 차이가 없었다.

표 4는 또래지위에 따라 자가지각과, 자가지각의 6개 하위척도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05수준에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6개 하위척도들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자가지각($F_{4,431}=7.717, p<.001$)에서는 거부집단과 무시집단이 인기집단과 양면성집단 보다 자신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거부집단과 무시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학업능력($F_{4,431}=4.432, p<.01$)에서 거부집단과 무시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지만 무시집단은 인기집단 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사회적 수용($F_{4,431}=17.898, p<.001$)에서 거부집단과 무시집단이 인기, 양면성, 보통집단 보다 자신이 더 낮게 수용되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며 거부집단과 무시집단 간에 차이는 없었다. 운동능력($F_{4,431}=6.082, p<.001$)에서는 무시집단이 인기집단과 양면성집단 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거부집단은 인기, 양면성, 보통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신체매력,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에 있어서는 지위 집단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3. 행동특성

또래지위, 학년, 성별에 따른 행동특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에서 또래지위, 학년, 성별의 상호작용($F_{4,427}=4.408, p<.001$)이 나타났다.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에서는 또래지위와 학년의 상호작용($F_{4,427}=12.368, p<.001$)이 나타났고 비주장성에서는 또래지위($F_{4,427}=4.217, p<.01$)의 주효과만 나타났다.

또래지위, 학년, 성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던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의 경우에 이원변량분석 결과, 또래지위와 학년($F_{4,437}=3.409, p<.01$), 또래지위와 성별($F_{4,437}=5.935, p<.001$), 그리고 학년과 성별

($F_{1,739}=9.002, p<.01$)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의 경우에, 먼저 남녀별로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특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05수준에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F_{4,226}=29.145, p<.001$)의 경우에 거부집단이 다른 지위 집단들보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으며 여학생($F_{4,211}=14.039, p<.001$)의 경우에는 거부집단과 양면성집단이 인기, 보통, 무시집단보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더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년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t_{379}=5.03, p<.001$)에서는 남학생($n=198, \text{평균}=4.67, \text{표준편차}=5.37$)이 여학생($n=183, \text{평균}=2.53, \text{표준편차}=2.52$)보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더 많이 갖는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표 5와 표 6은 학년별로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특성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05수준에서 사후검증(Scheffe)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의 경우에 초등학교($F_{4,212}=79.187, p<.001$)와 중학교($F_{4,229}=20.381, p<.001$) 모두에서 인기집단이 그런 특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 거부집단과 무시집단은 그런 특성을 가장 적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에서는 초등학교($F_{4,216}=24.635, p<.001$)에서 거부집단과 양면성집단이 인기, 보통, 무시집단보다 그런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었고, 중학교($F_{4,229}=23.351, p<.001$)에서는 거부집단이 다른 지위 집단들보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가장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장성의 경우에 초등학교($F_{4,216}=4.671, p<.001$)에서는 거부집단이 인기집단과 양면성집단보다 그런 특성을 더 많이 갖는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지위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초등학생의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또래지위 집단					F
	인기	양면성	보통	무시	거부	
긍정적 상호작용	14.62 ^a (5.99)	9.23 ^b (4.77)	5.35 ^b (4.03)	2.51 ^c (1.94)	1.70 ^c (1.65)	79.187***
부정적 상호작용	2.87 ^b (1.95)	9.21 ^a (4.77)	3.06 ^b (2.64)	1.92 ^b (1.54)	8.55 ^a (7.15)	24.635***
비주장성	1.68 ^b (1.75)	.95 ^b (1.26)	3.14 ^{ab} (5.80)	3.71 ^{ab} (6.50)	6.23 ^a (6.96)	4.671***

*** p<.001
같은 영문자는 .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

표 6. 중학생의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또래지위 집단					F
	인기	양면성	보통	무시	거부	
긍정적 상호작용	8.18 ^a (5.84)	4.69 ^b (3.64)	4.48 ^b (3.40)	2.28 ^c (2.43)	1.69 ^c (1.82)	20.381***
부정적 상호작용	.98 ^b (1.85)	2.82 ^b (2.00)	1.06 ^b (1.51)	1.15 ^b (1.63)	6.17 ^a (6.28)	23.351***
비주장성	2.31 (3.70)	1.97 (2.95)	2.17 (4.65)	3.05 (5.26)	3.62 (5.93)	.821

*** p<.001
같은 영문자는 .05 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

4.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8개의 행동특성들(측정도구 부분의 5. 또래행동 평가 참조)과 성적 중에서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을 설명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년별로는 같은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성별로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7의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적 지명에 대해 4개의 행동특성이 약 53%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중 '믿을 수 있다'(R²=.47)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모여서 협동을 잘한다' '쉽게 괴롭힐 수 있다'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8의 분석결과, 남학생의 경우에 부정적 지명에 대해 3개의 행동특성과 성적이 약 47%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싸움을 먼저 건다'(R²=.39)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 '성격' '친절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적 지명에 대해 4개의 행동특성이 약 47%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믿을 수 있다'(R²=.42)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친절하다'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 '모여서 협동을 잘한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

표 7. 남학생의 긍정적 지명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²	Adj R ²	BETA	T
긍정적 지명	믿을 수 있다	.683	.466	.464	.474	10.035 ^{***}
	모여서 협동을 잘한다	.711	.505	.502	.256	5.501 ^{***}
	쉽게 괴롭힐 수 있다	.721	.520	.517	-.104	-2.804 ^{**}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	.725	.526	.521	-.081	-2.158 [*]

* p<.05 ** p<.01 *** p<.001

표 8. 남학생의 부정적 지명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²	Adj R ²	BETA	T
부정적 지명	싸움을 먼저 건다	.628	.394	.392	.464	10.343 ^{***}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	.664	.441	.438	.222	4.863 ^{***}
	성적	.681	.463	.459	.133	3.399 ^{***}
	친절하다	.686	.471	.466	-.094	-2.434 [*]

* p<.05 *** p<.001

표 9. 여학생의 긍정적 지명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²	Adj R ²	BETA	T
긍정적 지명	믿을 수 있다	.651	.423	.422	.445	8.127 ^{***}
	친절하다	.673	.454	.451	.191	3.555 ^{***}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	.679	.461	.456	-.087	-2.202 [*]
	모여서 협동을 잘한다	.684	.467	.461	.105	2.132 [*]

* p<.05 *** p<.001

표 10. 여학생의 부정적 지명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²	Adj R ²	BETA	T
부정적 지명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	.645	.416	.414	.363	7.317 ^{***}
	쉽게 괴롭힐 수 있다	.683	.467	.464	.287	6.867 ^{***}
	싸움을 먼저 건다	.707	.500	.495	.212	4.606 ^{***}
	친절하다	.723	.522	.517	-.125	-3.319 ^{***}
	성적	.732	.535	.529	.127	3.310 ^{***}
	수줍어한다	.736	.542	.534	-.085	-2.227 [*]

* p<.05 *** p<.001

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 부정적 지명에 대해 5개의 행동특성과 성적이 약 54%의 설명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 중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R²=.42)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쉽게 괴롭힐 수 있다' '싸움을 먼저 건다' '친절하다' '성적' '수줍어한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5. 거부집단의 하위분류

거부집단을 하위분류하기 위해 8개 행동기술문(측정도구 부분의 5. 또래행동평가 참조)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싸움을 먼저 건다' 특성과 '쉽게 괴롭힐 수 있다' 특성에서 평균 + 1표준편차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싸움을 먼저 건다' 특성에 많이 지명되고 '쉽게 괴롭힐 수 있다' 특성에는 적게 지명된 학생들은 '공격-거부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쉽게 괴롭힐 수 있다' 특성에 많이 지명되고 '싸움을 먼저 건다' 특성에는 적게 지명된 학생들은 '위축-거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80명의 거부집단 중에서 29명(36.3%)은 공격-거부집단으로 그리고 15명(18.8%)은 위축-거부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거부집단의 두 개의 하위집단과 보통집단 간에 행동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후 .05수준에서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에서 공격-거부집단(n=29, 평균=1.81, 표준편차=1.81)과 위축-거부집단(n=15, 평균=1.59, 표준편차=1.51)이 모두 보통집단(n=159, 평균=4.88, 표준편차=3.72)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고(F_{2,200}=14.805, p<.001), 공격-거부집단과 위축-거부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에서는 공격-거부집단(n=29, 평균=12.57, 표준편차=6.42)이 위축-거부집단(n=15, 평균=3.22, 표준편차=2.02)과 보통집단(n=159, 평균=1.99, 표준편차=2.33)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F_{2,200}=132.451, p<.001), 위축-

거부집단과 보통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비주장성에서는 위축-거부집단(n=15, 평균=13.52, 표준편차=8.10)이 공격-거부집단(n=29, 평균=1.14, 표준편차=1.72)과 보통집단(n=159, 평균=2.62, 표준편차=5.22)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F_{2,200}=33.439, p<.001),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1은 공격-거부집단과 위축-거부집단 그리고 보통집단 간에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자기지가, 자기지가의 6개 하위척도들 그리고 성적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며 .05수준에서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하였다. 이때 거부집단 안에서 t검증 결과 학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년을 분류하지 않았다.

분석결과, 외로움(F_{2,200}=24.047, p<.001)과 사회적 회피(F_{2,199}=11.109, p<.001) 모두에서 위축-거부집단이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보다 더 많은 외로움을 보고했으며 공격적 거부집단과 보통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불안에서는 세 지위 집단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6개 하위척도들의 평균으로 이루어진 자기지가(F_{2,193}=9.307, p<.001)에서는 위축-거부집단이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보다 자신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위척도별로 살펴보면, 학업능력(F_{2,193}=8.314, p<.001)과 사회적 수용(F_{2,193}=17.506, p<.001)에서도 위축-거부집단이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 보다 자신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운동능력(F_{2,193}=11.557, p<.001)에서는 위축-거부집단이 자신의 능력을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보통집단이었고 공격-거부집단이 자신의 능력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매력,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에서는 지위 집단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성적(F_{2,200}=19.413, p<.001)에서는 위축-거

표 11. 거부집단의 하위분류에 따른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자기지각, 성적의 평균과 표준편차

종속변인	또래지위 집단			F
	공격-거부 (n=29)	위축-거부 (n=15)	보통 (n=159)	
외로움	34.59 ^b (10.59)	47.07 ^a (9.79)	30.55 ^b (8.63)	24.047 ^{***}
불안	15.45 (5.23)	17.50 (6.44)	15.39 (4.98)	1.096
회피	12.17 ^b (4.18)	18.29 ^a (6.02)	12.46 ^b (4.52)	11.109 ^{***}
자기지각*	15.12 ^a (2.47)	11.68 ^b (3.72)	14.77 ^a (2.36)	9.307 ^{***}
학업능력	13.70 ^a (3.12)	10.58 ^b (3.70)	14.41 ^a (3.15)	8.314 ^{***}
사회적 수용	14.15 ^a (2.51)	9.50 ^b (4.76)	15.36 ^a (3.37)	17.506 ^{***}
운동능력	18.26 ^a (3.56)	12.33 ^c (4.29)	15.36 ^b (3.76)	11.557 ^{***}
신체매력	13.74 (4.32)	10.83 (4.59)	13.52 (3.92)	2.615
품행	15.26 (3.66)	13.83 (5.41)	14.94 (2.74)	.909
전반적 자기가치	15.59 (3.43)	13.00 (5.88)	15.00 (3.90)	1.804
성적**	1.45 ^b (.51)	1.27 ^b (.59)	2.16 ^a (.78)	19.413 ^{***}

*** p < .001

* 자기지각 점수는 6개 하위척도들의 평균을 사용

** 성적 : 상 (3) 중 (2) 하 (1)

같은 명문자는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

부집단과 공격-거부집단 모두가 보통집단 보다 더 낮은 성적을 보였으며 위축-거부집단과 공격-거부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급에서의 또래관계에 따라 5개 또래지위로 분류하고, 이 또래지위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특성, 학업수행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발달적 비교를 하였다. 그리고 부적응과 행동문제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거부집단의 하위유형을 분류하여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특성, 학업수행의 차이를 따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세 부분, 즉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특성, 거부지위의 하위유

형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라 5개 또래지위로 분류하여, 지위집단 간에 외로움, 사회적 불안, 사회적 회피, 학업성적, 자기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부집단의 외로움과 사회적 회피 수준이 가장 높았고 성적은 가장 낮았으며, 사회적 불안에서는 5개 지위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또래에게 거부되는 학생이 다른 지위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Asher와 Wheeler(1985), Cassidy와 Asher(1992), Parkhurst와 Asher(1992), 그리고 Crick과 Ladd(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Crick과 Ladd(1993)의 연구에서 외로움이 사회적 회피 감정과 밀접한 상관을 보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외로움과 사회적 회피는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Peplau와 Perlman(1982)은 청소년들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외로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ranke와 Hymel(1984)의 연구에서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불안을 나타낸다고 보고하면서 소년들도 소녀들만큼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지지각에서도 지위집단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거부집단과 무시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낮게 지지하고 있었다. 하위척도 별로 보면, 사회적 수용에서 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낮게 지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이들이 또래들로부터 낮은 수용을 받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업능력에서는 무시집단이 인기집단보다, 운동능력에서는 무시집단이 인기집단과 양면성집단보다 더 낮게 지지하였고, 거부집단은 다른 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신체매력, 품행, 전반적 자기가치에서는 지위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실제 학업성적은 거부집단이 가장 낮았으나,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지지각은 무시집단만 인기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이 흥미롭다. 자기지지각의 하위영역에 따라 지위집단간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Boivin & Begin, 1989; Patterson, Kupersmidt, & Griesler, 1990)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지지각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척도별로 보면, 사회적 수용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신을 더 높게 지지하였고, 품행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을 더 높게 지지하였다. 연령에 따른 자기지지각의 차이는, 아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점차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지지각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고,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학습내용

이 더 어려워지고 실패의 경험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지지각이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한 것은 한편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늦게 성숙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권의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월주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 5개의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인기집단은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무시집단과 특히 거부집단은 이러한 특성을 가장 적게 나타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거부집단은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이 높았지만 무시집단은 이러한 특성에서 보통 집단과 다르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초등학생의 경우 양면성집단도 거부집단 만큼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보인 것이다. 양면성집단은 부정적 상호작용을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보완하여 또래로부터 거부당하지 않는 것 같다. 중학생의 경우 양면성집단의 부정적 상호작용 수준은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지 않았다. 비주장성에서 초등학생은 거부집단이 인기집단과 양면성집단보다 높았으나 중학생은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지명하는 ‘긍정적 지명’과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지명하는 ‘부정적 지명’을 가장 잘 설명하는 행동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각각 ‘믿을 수 있다’(R²=.47)와 ‘싸움을 먼저 건다’(R²=.39), 여학생의 경우에는 ‘믿을 수 있다’(R²=.42)와 ‘집단에서 일을 망친다’(R²=.42)로서, 긍정적 지명은 남녀학생이 같았으나 부정적 지명은 서로 달랐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뢰성인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친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공격성, 여학생의 경우에는 방해성(disruptiveness)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거부되는 아동이 공격성과 방해성을 보이며 친사회적 행동특성이 부족한 반면에,

무시되는 아동은 비록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은 부족하지만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선행연구 결과들(Cantrell & Prinz, 1985; Parkhurst & Asher, 1992)과 일치하고 있다. 거부되는 아동은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많이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에는 심리사회적 적응문제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무시집단은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거부집단과 달리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덜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 심리사회적 적응문제를 별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거부지위 집단을 하위분류한 결과, 공격적이고 방해적인 행동특성을 갖는 공격-거부집단과 심한 사회적 비주장성과 낮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특징인 위축-거부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거부집단 내에서 각각 36.3%와 18.8%를 차지했다. 공격-거부집단과 위축-거부집단을 보통집단과 함께 비교한 결과, 위축-거부집단이 공격-거부집단보다 외로움과 사회적 회피 수준이 더 높고 자신을 더 낮게 지각하였으며,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불안에서는 세 지위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은 위축-거부집단과 공격-거부집단이 모두 보통집단보다 더 낮았다. 행동특성에서는 공격-거부집단과 위축-거부집단 모두 보통집단보다 긍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더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거부집단은 위축-거부집단과 보통집단보다 부정적 상호작용 특성을 더 많이 갖는 반면에, 위축-거부집단은 공격-거부집단과 보통집단보다 비주장성을 더 많이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거부집단의 아동들이 서로 동질적이지 않고, 외로움이나 사회적 회피, 자기지각, 행동특성 등에서 서로 다른 하위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Dodge, 1983; French, 1988; Parkhurst & Asher, 1992; Rubin, LeMare & Lollis,

1990)을 지지한다. 즉, 거부집단 아동들이 모두 학급에서 인기가 없고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과 학업 성적이 낮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위축-거부집단은 외로움, 자신감 부족, 낮은 자아존중감, 비주장성 등 내면화 문제의 가능성을 보인 반면에, 공격-거부집단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덜 인식하고 있고 자신에 대해 과대 평가하는 등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위축-거부 아동은 자신의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 내면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을 과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공격-거부 아동은 공격적인 또래들끼리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위축-거부 아동보다 사회적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공격-거부집단과 위축-거부집단은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들에게 각기 다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집단에 관한 결과는 집단따돌림 현상과 관련하여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춘재와 박금주(2000)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에 의해 따돌림 유형을 피해, 가해, 피해-가해집단으로 분류하여 정상집단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자기지각의 측정 결과, 피해집단과 피해-가해집단의 자기지각이 가해집단과 정상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시켜 보면 대체로 공격-거부집단은 가해집단으로, 위축-거부집단은 피해집단과 피해-가해집단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으나, 가해집단이 일반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인기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격-거부집단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또래지위와 집단따돌림 현상을 관련시켜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보고와 또래평가 방법만을 사용하였으나, 외적 준거로서 교사, 부모 등 성인의 평가자료도 함께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거부집단으로 분류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사와 부모와 상의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를 받

도록 하여 현재와 미래의 심리사회적 적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치영 (1987).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과 학업성취.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영 (1993). 또래의 수용이 청소년기 고독감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 (1985). *아동연구발달*. 서울 : 교문사.
- 이춘재, 박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최우영 (1994). 사회성 측정 지위에 따른 아동의 귀인 유형과 사회적 부적응 감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er, S. R., Hymel, S., & Renshaw, P. D.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 Boivin, M., & Begin, G. (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591-596.
-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rience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1), 135-145.
- Bovin, M., Poulin, F., & Vitaro, F. (1994). Depressed mood an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483-498.
- Cantrell, V. L., & Prinz, R. J. (1985). Multiple perspectives of rejected, neglected, and accepted children: Relation between sociometric statu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6), 884-889.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365-40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Cillessen, A. H. (1993). Peer rejection: Origins and effects on children's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2, 89-92.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 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4), 557-570.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44-254.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Franke, S., & Hymel, S. (1984, May). *Social anxiety in children: The development of self-report measures*.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biennial meeting of the University of Waterloo Conference on Child Development, Waterloo, Ontario, Canada.
- French, D. C. (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s.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Manual, University of Denver.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Hymel, S., Rubin, K. H., Rowden, L., & LeMare, L.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2004-2021.
-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1). Childhood peer rejection, aggression, withdrawal, and perceived competence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behavior problems in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427-449.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eplau, L. A., & Perlman, D. (1982).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
- Rubin, K. H., LeMare, L.,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217-2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 on Psychosocial Adjustments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Yun Kyung Kim Ok-Ky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er relations on psychosocial adjustments and behavior characteristics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Three hundred and eighty one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382 2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ere administered a sociometric measure, a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 a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questionnaire, self-perceptions questionnaire, and peer behavioral assessment item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5 peer status groups(popular, controversial, average, neglected, rejected) and the rest with the sociometric measure. The rejected group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loneliness and social avoidance, contrary to the popular group. The rejected and the neglected groups perceived themselves lower than the popular and the controversial groups. The rejected group showed the negative interactional qualities most and the positive interactional qualities least and the opposite was the popular group. The neglected group showed little positive and negative interactional qualities. The rejected group was subdivided into the aggressive-rejected and the withdrawn-rejected groups according to their behavior characteristics. Although both subgroups showed low levels of positive interactional qualities, the withdrawn-rejected group reported higher levels of loneliness, social avoidance and lower self-perceptions than the aggressive-rejected and the average groups. It was suggested that the rejected subgroups may need different intervention programs because their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